

종합·해설

文 “고강도 당개혁”… 安과 거리 좁히기

계파정치 청산·친노 프레임 돌파 의지

세비 30% 삭감·기초의원 여성 30% 추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이른바 3일 민주당 개혁을 골자로 한 정당혁신안을 발표하며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문 후보가 새 정치 카드를 다시 뽑아든 것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의 거리 좁히기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시기상으로 안 전 후보가 이날 캠프 해단식에서 문 후보 지원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맞물리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문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완결할 때까지 민주당을 만들겠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겠다”며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어조로 민주당 개혁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문 후보는 계파정치 청산 내지 탈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의 용광로 선대위 구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친노 해계 모니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노무현정권의 2인자라는 친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위원회도 계파정치 청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파 간 조적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도부 선출방식 개선, 공천을 비롯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공천권의 국민 환원 등도 포함될 가능

성이 있다.

문 후보 측은 기초의원에 국한했던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을 최근 기초단체장으로 확대하는 안을 만든 상태다. 중앙당의 권한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국고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정책당화추진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새정치위 내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기초의원 30% 이상을 여성에 게 배정하고 고위공직에서도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경환 새정치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임기말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

다”며 “이번에도 다음 총선을 생각해서 그런 경향이 보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안을 의결, 이번 주 초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춘천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특별 의원총회에서 세비를 30%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다.

박지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이 세 정치와 정치해신을 열망하고 있고, 의원들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세비를 30% 삭감하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최창기 사건으로 기록된 심가포르 선적 ‘제미니(MT GEMINI)’호의 한국인 선원 4명이 1일 피랍 1년7개월여만에 모두 석방돼 청해부대 강감찬함에 승선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10~22일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

체제결속·대미협상력 제고 목적… 대선 北風 주목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험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며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결국 북한이 발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큰 파장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도 이른바 ‘북풍’이 작용할 지 주목된다.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로켓을 쏘게 되면 김정일 주석의 100회 생일에 즈음한 지난 4월13일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가 궤도 진입에 실패한 뒤 8개월 만에 재시도하는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전번(지난 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케트는 ‘은하-3’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태영 외교장관 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하면서 발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데는 올해 출범한 김정은 체제

가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12월17일)에 맞춰 그의 유훈으로 강조해온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주민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이날 19일 예정된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속셈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장거리 로켓을 4차례 발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예정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1단 추진체는 우리나라 서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발사 후 1단계 추진체는 우리나라 서쪽 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선전 ‘정권교체’… 대선후 ‘정치쇄신 연대’

■ 비공개 회동 安·孫 무슨 이야기 나눴나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지난 달 26일 비공개 회동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전 후보와 손 고문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4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손 고문은 후보자 사퇴로 마음고생을 했을 안 전 후보를 위로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고문은 안 전 후보에게 “새 정치도 중요하고 정권교체도 중요하다”며 “나도 속이 많이 상했었지만 정권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고 손 고문의 한 측근은 전했다.

손 고문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불공정 모바일경선 논란 등과 관련

해 문재인 후보 측과 갈등을 겪었고 안 전 후보도 단일화 물결상 과정에서 문 후보 측과 갈등했기 때문에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 고문은 특히 이날 안 전 후보를 만난 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도 만났다. 이때 문 후보에게 안 전 후보와 회동 사실을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손 고문은 광화문 유세를 시작으로 문 후보 지원에 나섰다. 안 전 후

보 역시 3일 캠프 해단식을 기점으로 문 후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여 두 사람은 ‘정권교체’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대선 이후의 상황이다. 두 사람은 당시 만남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내 계파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다 친노(친노 무천) 세력과 갈등이 표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의 지지기반이 중도층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특히 안 전 후보의 경우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손 고문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과제로 미뤄둔 셈이다.

정부가 세외(稅外)수입으로 편성한 기업은행 자본매각액(5조1천억원) 등에 대해서도 심사가 미뤄졌다. 그밖에 상임위원 감액의견이 많이 제기됐던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위 등에서도 상당수 쟁점 사업들이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 대선후 처리 가능성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12월19일 대선일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예산심사에서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열린 계수소위 증액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심사

항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파행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내 통과는 무산됐고, 대선일 이전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계수소위의 감액 심사가 대략 마무리됐지만 ‘보류된 쟁점 항목이 많아 추가적인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계수소위는 통상 감액 심사를 통해 3조~4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삭감한 금액은 1조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조~3조원의 예산 항목들은 추가 논

10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3위·15만881표)를 큰 표차로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올 한해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수 싸이(박재상·35)는 6만7646표를 얻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온라인 독자 투표는 내달 12일 마감된다. 타임은 독자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올해의 인물’ 주인공을 내달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타임지 ‘올해의 인물’ 온라인투표 1위

싸이 4위… 내달 14일 발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온라인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타임에 따르면 독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의 중간집계 결과 김 제1위원장은 98만5421표를 득표,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2위·31만8016표)과 파키스탄의

/연합뉴스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상가·단독주택·오피스,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모집, 납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입야등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평

광주, 화순, 담양, 나주, 정성, 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영동)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신평면 매성리 354-32

이시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뽕나무밭 1만평 P당 3만원

***** 광주 신가지구 일반산임지역 대지194P P당390만

***** 장성 백암사임구 모텔 및 식당(성업중)대800P, 매가18억

***** 영광군 읍.자동차정비공장20년간운영 자동차점시장등,매가6억

***** 화순 이양면 초창리 임(77,727㎡,23,512평)매가1억

***** 광주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준공임지역,1천4백P,2천5백P, 2만P등(각종 공장 및 기타사용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590P, 중심상업지역 매가24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가11억3천만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421P,매가3400만

***** 오지동 3층신축상가주택 매11억(중,보5억5천포함)월수6백만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전200P,청고,공장,주택등,매가1억

***** 광산구 우산동 4층원룸 매가6억 월수 6백만,

***** 영광군 흥농읍 주유소, 대지460평 매가5억

***** 북구 중흥동 원룸3층원룸 매가4억 월수 250만(인접별도)

***** 장성군 북하면 백암사임구 주유소,대919㎡, 매가 4억5천만

***** 장성군 읍,덕진리 대로면 전답,임야용10,100P, 매가 P당15만

***** 광주 오치동 아파트밀집지역내 5층상가,대166P,매가17억

구합니다(매수자대기)

***** 칠랑공정부지1~3천평 (담양 대전면부근,8M이상도로접)

***** 담양, 봉산면부근 공정부지3천평(대형차량진입가능)

*****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화순,담양,함평,곡성등)

***** 광주시내 수익성있는 상가건물3~18억선

***** 광주,침단2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300평

*****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 전남,전북일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 도로여건 및 경관좋은임야 1만평이상

***** 원룸 신축부지(광산구 산정동 및 신가,하남,침단지구등)

기타물건다량보유-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 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능)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명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명동랜드피아 O/P 1층)

급매 상가/원룸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월세794만

▶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투룸 4개

▶ 토지면적 : 330.58㎡
(100p)

▶ 건축면적 : 737.19㎡
(223p)

▶ 매매가6억9천(용자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3
억9천9백만 대출이자 월
122만원 공제하면 월순수익
672만원 년수익률 20% 편
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
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 의 : 011-684-3886

모텔 매매

▶ 아시아문화전당 전대방
원부근

▶ 토지 89P 건물 233P

▶ 5층 객실21개 지하 노래
홀 엘리베이터 주차장 각
종 편의시설 완비 최근
리모델링 완료

▶ 매매가 4억9천 용자 2억3천
5백 실투자액 2억5천5백

문 의 : 011-684-3886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소문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지점 대인동 소정서진내선)